

# “10만전자 꿈꿨는데...”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도 주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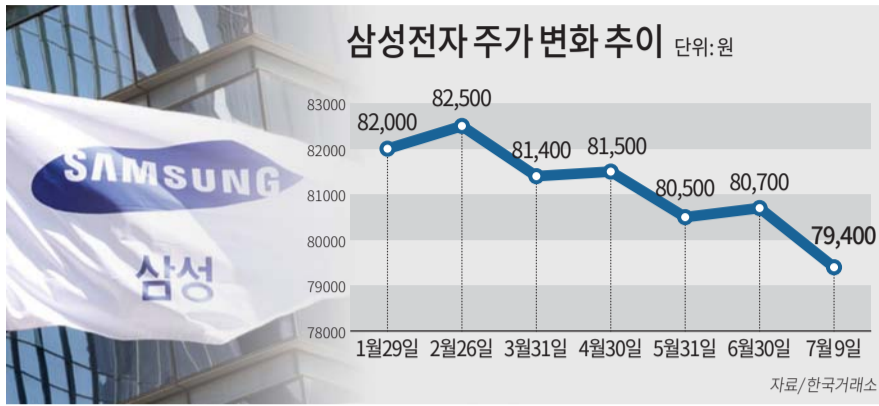
삼성전자 2분기 잠정 매출액 63조 2분기 실적, 이미 주가에 선반영 “특별한 이벤트 있어야 상승 전망”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시 7만원대를 기록했다. 두달 만에 최저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깜짝 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고객사 확보 등 특별한 이벤트가 나와야 주가가 의미있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0원(-0.63%) 하락한 7만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출근 8만원 초반대에서 박스권 보합세 움직임을 보이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8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7만원대를 기록한 것.

### ◆삼전 개미 주주 386만명

올해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를 보유 중인 소액주주는 총 386만79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15만3969명에 비



해 170만명 이상 늘어났는데, 올해 초만 해도 ‘10만전자’를 바라보던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 평균단가(순매수 거래금액을 순매수 거래량으로 나눈 값)를 9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올해 순매수 평균단가는 8만3167원이다. 9일 종가 7만9400원과 비교했을 때 -4.52%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즉, 삼성전자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4.52% 손해를 보

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발표를 통해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 63조원, 영업이익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4%, 53.37% 급증한 수치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을 겪었던 지난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깜짝 실적 발표에도 주가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발표 이후 8~9일 양일간

외국인은 5521억원, 기관은 3282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8552억원을 순매수해 주가 하락을 지지했다.

### ◆“주가 상승 위해 특별한 이벤트 필요”

전문가들은 2분기 깜짝 실적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9분기 연속 깜짝 실적 발표에 시장의 보수적인 평가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분기 연속으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다보니,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당연한 정례 행사가 됐다”며 “실적이 잘 나왔으니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얘기는 공허한 메아리”라고 밝혔다.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파운드리 증설이나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성과나 전략 등 특별

한 이벤트가 등장할 경우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다.

또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증권사 평균 목표주가는 10만2182원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이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디램(DRAM) 출하 증가율이 10%에 가깝고, 재고가 많지 않아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팹리스 고객사의 추가 확보나 M&A 추진과 같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이라며 “파운드리나 M&A 등 그동안 삼성이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나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화장품 실적 상승세에 목표주가 상향

### metro 관심종목 LG생활건강

중국 시장 필두 실적 성장 전망 가파른 상승세보다 완만한 상승세

LG생활건강이 중국 시장을 필두로 화장품 부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LG생활건강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LG생활건강은 전 거래일보다 4만3000원(2.44%) 하락한 172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 LG생활건강의 주가는 2.8%가량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수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백신 접종에 따른 마스크 벗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LG생활건강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삼성증권	231만원
한화투자증권	214만원
메리츠증권·IBK투자증권·유안타증권·KB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210만원
현대차증권	205만원
대신증권	200만원

박신에 KB증권 연구원은 “LG생활건강은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과 탁월한 비용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월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유효하나, 가파른 상승세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기존 222만원에서 231만원으로 LG생활건강의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이어 한화투자증권 214만원, 메리츠증권·IBK투자증

권·유안타증권·KB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210만원, 현대차증권 205만원, 대신증권 200만원 등의 순이다. 모두 투자 의견 ‘매수’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부문 실적 개선세에 2분기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중국에서 화장품 ‘후’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LG생활건강의 매출은 2조779억원, 영업이익은 3525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3%, 16.22% 늘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LG생활건강이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6·18 행사(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에서 대표 브랜드 후가 ‘톱(top)5’에 들며 중국 내 화장품 수요 강세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 내 화장품 수요 강세가 국내 면세 매출 강세로 이어지고 있어 LG생활건강이 ‘톱 티어(top tier)’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 LH,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등 설계공모

공모 대상 총 4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가구)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면서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건설돼 입주민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의 공모 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가구, AB8블록에서 1567가구로 총 245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책임 있는 시공 등이 요구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전국 8359가구 분양... 70% 이상 경기도

### 분양 캘린더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8359가구 중 5919가구가 경기도에서 분양된다. 총 분양 물량의 70% 이상이 경기도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1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둘째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8359가구(오피스텔, 공공분양, 국민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경기도 용인시 고령동에서는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평택시 고덕면에서는 ‘고덕신도시 유보라더크레스트’ 오피스텔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3기 신도시 총 4333가구의 사전청약 공급물량이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의왕 청계2, 위례에서 풀린다. 사전청약 대상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물량의 절반 정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오는 16일 1차 입주자모집공고 발표된다. 청약 접수는 LH청약센터에서 이뤄진다.

건본주택은 4곳에서 개관한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충남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 1차’ 건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5곳에서 진행된다. 계약은 9곳에서 진행된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

## KB증권, 주식·ETF 거래시 현금 리워드

기가 리워드·슬기로운 ETF생활

KB증권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현금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기가 리워드(Giga Reward) 이벤트’와 ‘2021 슬기로운 ETF생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은 12일부터 8월 6일까지다.

이번 이벤트는 KB증권을 통해 국내 주식과 ETF를 거래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Giga Reward 이벤트’는 기간내 국내 주식 일간 매매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억원 이상인 경우 4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의

현금 리워드 혜택을 매일 제공한다.

‘2021 슬기로운 ETF생활 이벤트’는 기간내 국내 상장 ETF 일간 매매금액에 따라 ▲200억 이상인 경우 160만원 ▲150억 이상인 경우 120만원 ▲100억 이상인 경우 80만원의 현금 리워드 혜택을 매일 제공한다.

하우성 KB증권 마블랜드트라이브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벤트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